

으…….

(정신이 든다)

“코드블랙! 코드블랙!”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땅을 울리는 대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이곳은 어디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웬 건축자재들이 널브러져 있다.

아무래도 나는 공사 중인 빌딩 안에 있는 것 같다.

계속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사이렌 소리에 창밖을 내다보았더니 저 멀리 사람들이 머리에 짐을 이고 피난행렬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들어온다.

잠시 후 계단으로 사람이 내려오다가 나를 보고 말한다.

“아직까지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 피하세요. 여기도 곧 쳐들어 올 것 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은 계단 아래로 사라져 버렸다.

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쟁터 한가운데 홀로 남게 된 것 같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먼저 도망가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봐야겠다.

어디로 가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피난 가는 쪽으로 가봐야지…….

(이동 중)

헉…….헉헉…….

너무 힘들다.

피난 간 쪽으로 뛰다보니 몸도 지치고 하늘을 보니 곧 해도 질 것 같다

일단 몸을 숨기고 지친 몸을 달래야겠다.

오! 때마침 저기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폐허가 보인다. 거기서 쉬어야겠다.

(이동 중)

폐허로 도망친 지 1시간째 대포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

모든 것이 낯설다.

이곳은 어디인지, 왜 내가 이곳에 와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나저나 이젠 또 뭐야, 내 가슴팍을 짓누르는 것이 있어서 살펴보니 웬 책이 있다.

언제부터 내가 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아까 전에도 이 책을 가지고 있었나?

설마……. 이 책은…….

‘히이이잉유우웅, 쿠구궁’

책에 대한 생각이 드는 순간 머리위로 비행기가 지나가고 대포소리가 들려온다.

대포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듣고 있자니 이곳은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어느 정도 쉬었는데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피난 가던 쪽으로 도망칠까?

아니야. 밖이 이제 어두워져서 군인들이 막 총을 쏘지도 몰라……. 대포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나가는 건 위험할 것 같기도 한테…….

아니면 하루정도는 건물 안에서 숨어있어도 될 것 같으니 이곳에서 숨을 곳을 찾아볼까?

1-1. 사람들이 피난 가던 쪽으로 도망친다.

1-2. 밤이 어두우니 폐허 안에서 숨을 곳을 찾는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피난 가던 쪽으로 따라 가는 것이 더 안전 할 것 같다.

그 사람들도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 일 테니 말이다.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몸을 이리저리 숨겨가며 피난행렬이 있던 쪽으로 계속해서 달려간다.

이미 다들 멀리 도망갔는지 사람들의 행렬이 쉬어 보이지 않는다.

그때, 저기 트럭 한 대가 급히 출발하려는 것이 보인다.

그 맞은 편 집에 버려진 것 같은 오토바이도 한 대 보인다.

뭐라도 타서 우선 이 전쟁터부터 멀어져야겠다.

2-1. 트럭 뒤에 몰래 탄다.

2-2. 오토바이를 탄다.

트럭은 큰길을 따라 달리더니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여 골목을 돌아 이곳저곳을 달리며 마을을 벗어나고 있다.

전쟁이 난 도시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이자 마음이 안심되기 시작한다.

긴장된 몸이 풀린 탓일까 눈꺼풀이 무거워온다.

이제 트럭은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 어느 도로를 달리고 있다.

나는 도로의 몽롱한 가로등 빛과 자장가 같은 트럭의 엔진소리에 쓰러지듯 잠에 빠져든다.

(잠깐 자는 중)

‘덜커덩’

트럭이 크게 요동치는 바람에 잠에서 깬다.

트럭은 어딘지 모르는 황량한 곳을 달리고 있다.

이곳은 어딜까? 산이 보이고 작은 물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다.

아 맞다! 그 책!

정신이 없었던 탓인지 책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가슴팍에 있던 책을 꺼내 들었다.

이 책은 집에 가는 길에 어떤 거지에게 받은 것이다.

거지를 보고 기부를 할 겸 주머니에서 천원을 꺼내 준다는 것이 만원을 꺼내서 주자 거지는 고맙다며 내게 책 한권을 주었다.

나는 돈을 다시 달라하기도 멋쩍어서 그냥 그 책을 받아 집으로 들어왔다.

나는 유령에 홀린 듯이 그 책을 받아 집에 와서 읽으려고 보니 이런……. 영어 책이라니…….

책을 책상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채로 저녁이나 먹었다.

저녁을 먹고 할 것이 없기도 하고 심심해서 한번 읽어나 볼까 하는 생각에 책을 들어 첫 페이지를 넘기자 ‘책의 길을 따라 미래의 길을 여행해보지 않을까?’라는 정체 모를 글과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쓴 것 같이 보이는 동그라미와 엑스들이 너저분하게 쓰여 있었다.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동그라미를 체크를 하는 순간 책이 나를 빨아들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설마 내가 책 안으로 들어온 것인가?

3-1. 정말 책 안에 들어온 것인가?

3-2. 말도 안 된다. 책 안에 들어오다니. 나도 미쳤나보다.

<3-1,2>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도 있으니 책을 조금 읽어보기로 했다.

‘2173년 지구는 물이 고갈되어 각 나라들은 물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쪼개지고 각 지역은 물로 인한 싸움이 벌어진다.’

…….

몇 장 넘겨서 더 읽어 봐야겠다.

‘물 사업을 하는 주인공은 빌딩에서 낮잠을 자던 중 내전이 발생하고 전쟁 중에 홀로 남게 된다.’

뭔가 내 상황이란 비슷하군.…….

‘전쟁을 피해 달아나던 주인공은 오토바이와 트럭을 발견하고 출발하는 트럭 뒤에 무임승차하여 전쟁을 피해 달아나게 된다.’

‘뭐지 상황이 너무 겹치는데…….아니, 이건 그냥 판박이잖아!’

‘진짜 내가 책속에 들어온 건가?’

‘그럼 책을 읽으면, 책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더 읽어 보자.’

그때 갑자기 덜커덩 하는 소리와 함께 트럭이 크게 흔들려 책을 놓치고 책은 물건들 사이의 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린다.

운전사의 운전 실력을 욕하며 책을 꺼내려고 하는데 운전사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트럭 안에 물이 새는지 정체를 물소리가 들려 잘 안 들리기는 하지만, 나는 귀를 쫑긋 세워 듣기 시작했다.

‘아니 전쟁이 났다니깐요. 이장님, 네, 네, 아니요 다행히 물건들은 챙겨서 도망 나오는 길입니다. 네?! 우리도 옆 마을 사람들과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먼저 주무세요.’ (전쟁이 났는데 옆 마을 사람들이랑 또 전쟁을 준비!?)

…….

뭐지……. 전쟁을 피한 줄로만 알았는데 전쟁을 맞이하러 가는 이 분위기는…….

진짜 책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책속으로 들어온 것이 맞는 것 같다.

이 전쟁들을 피하려면 얼른 책을 읽어버리는 방법밖엔 없는 것 같다.

급한 마음이 들어 물건들 사이의 틈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책을 찾는다.

‘찾았다. 이제 읽어봐야지!’

‘근데……트럭이 곧 도착한다고 했는데…….’

‘지금 트럭에서 내려 책을 마저 읽을까? 아니면 트럭이 멈추기 전에 후다닥 읽어버릴까?’

4-1. 후다닥 읽어 책속에서의 탈출방법을 알아낸다.

4-2. 지금 트럭에서 뛰어내린다.

그래, 한 시 빨리 탈출해서 집에 가고 싶다.

침을 꿀꺽 삼키며 책을 펼쳐 들었다.

‘주인공은 트럭에서 잠이 든다. 트럭의 움직임에 일어난 주인공은 들려오는 운전자의 통화 소리에 자신이 다시 전쟁터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주인공은 트럭이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트럭이 멈추는 순간 몰래 빠져나와 집에 숨어든다.’

끼이익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린다.

벌써 트럭이 마을에 도달한 것 같다.

‘이런 아직 다 못 읽었는데…….’

영어책이라 좀 채 읽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

평소에 영어 공부 좀 해둘걸.

우선, 나는 책에서 읽었던 것처럼 트럭이 멈추려고 할 때 운전사의 눈을 피해 내렸다.

트럭에 내리자마자 한 건물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래, 저 건물에 몸을 숨겨야겠다.

(이동 중)

건물에 들어 가보니 포근한 느낌이 났다.

사람들이 다 자는지 사람 인기척이 나지 않는 것 같다.

5-1. 사람을 찾아가 사정을 말해본다.

5-2. 몰래 방안을 들어가 책을 마저 읽는다.

<5-1,2> “으 업!” 살그머니 발뒤꿈치를 들어 한 방을 찾아 들어갔다가, 방안에 한 여인이 서있어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는 여인의 입을 막았다.

“누구세요..음”

“저는 아무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아요. 당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해요!”

“괜찮으십니까?” 때마침 밖에서 아까 그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무래도 여인의 짧은 비명을 듣고 문을 두드린 것 같다.

순간 아까 운전기사가 한 말이 스쳐 지나가며, 이곳이 전쟁지역인 것이 생각났다.

6-1.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여인에게 숨겨 달라 애원한다.

6-2.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여인을 인질삼아 도망간다.

“저기요,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기 장롱 안에 숨으세요.”

여인이 큰 눈을 초롱초롱히 뜨며 나에게 속삭인다.

착한 여인이 나의 마음을 알아 준 것일까.

(이동 중)

나는 떨리는 손을 붙잡고 장롱 안에 숨어 숨죽이고 있으려니 나의 심장소리가 쿵쾅거리며 크게 들려온다.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했으나, 잘 들리지도 않았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끼이이이익’ 하고 장롱의 문이 열린다.

순간 내가 숨은 장롱을 가리키는 여인의 모습과 함께 내게 개머리판을 휘두르는 군인의 모습이 보인다.

(기절 중)

‘으으…….’정신을 차려보니 어둡고 습기가 가득 찬 공간에 있다.

지하실 같은 곳에 갇힌 건가? 모르겠다. 머리만 아파온다.

책을 보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어, 가만 보니 책이 없어졌다!!!

‘어디 간 거지, 군인이 가져간 건가? 여인이 가져간 건가?’

날 속인 여인에 대한 화가 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책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난다.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단서인데…….

내가 과연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7-1.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7-2. 책이 없어지다니 나는 가망이 없다.

<7-1,2>. 지하실에 갇힌 지 얼마나 되었을까…….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 나를 심문하기 시작한다.

목소리로 보아 그 운전기사 같다.

‘자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정보를 빼내러 왔나?’

전쟁을 한다고 했으니 아마 나를 반대 팀의 스파이로 생각하는 것 같다.

낯선 사람이 주저 침입을 했고 전쟁 상황이니 의심받을 만하다.

‘아니요…….’

‘그럼 왜 이장의 집에 잠입한 거지?’

나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해 주었다
심문하던 사람은 뭔가 아리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나가버린다.
‘자기도 그 전쟁터에 있었으니 믿어주겠지?’
잠시 후 나를 배신한 여인이 밥과 물을 가져다주었다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여인의 얼굴을 보자 화가 너무나 나서 입맛이 떨어졌다.
‘나를 또 속이고 약을 탈수도 있어.’라는 의심도 든다.
내가 경계하는 모습을 보고 여인은 보란 듯이 나에게 가져온 밥과 물을 조금 먹고 나가버린다.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한 행동인가.
그래도 나는 여인이 가져온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을…….
‘꾸르으윽’
…….
먹기는 먹어야겠다.

‘아 씨!’
일단 살자는 마음으로 밥부터 재빠르게 먹어 치우고 물을 마셨는데, 물맛이 이상하다.
약을 탄 물인가? 아까 여인도 마셨으니 그건 아닌가? 그럼 오염된 건가?’

8-1. 마시지 않는다.

8-2. 마신다.

여인이 준 물을 마시려니 꺼림칙하다.
그런데 안마시고 있자니 목이 마르다.
지하실 주변을 둘러보니 번뜩 생각나는 게 있다.
‘그래! 간이정수기를 만들자!’ 둘러보니 무슨 공사를 하려고 했는지 여기저기 건축자재들이 보인다.
간이정수기를 만들 때 쓰이는 모래, 자갈, 숯 등도 여기저기 널려있다. 굴러다니는 페트병 하나를 줍고 옷을 조금 찢어 페트병 입구를 막고 그 안에 모래, 숯, 모래, 자갈 순으로 넣는다. 이제 물을 붓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정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다.
물이 다 걸러지기도 전에 여인이 들어와서 수상한 물건이라며 가져가버릴 것 같다.

9-1. 정수기로 정수하여 마신다.

9-2. 그냥 여인을 한 번 더 믿고 문제없으리라 생각하고 여인이 준 물을 마시자.

(기다리는 중)

물을 붓고 조금 기다리니 정수 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얼른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에 입을 가져다 대서 마셔보았다.
달달하다.
역시 여인이 준 물은 오염된 물이었다. 달달한 물을 마시니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시간이 좀 흘렀을까
조금씩 마시니 목이 더 말라서 물이 어느 정도 걸러지면 마시려고 여인이 가져다 준 컵을
놓고 정수가 되길 기다렸는데
물이 반도 안차서 여인이 들어온다.
그리고는 식기와 함께 내가 힘들게 만든 간이 정수기를 가져간다.
‘젠장…….’

(자는 중)

하루가 지났다.
이장이 갑자기 나를 풀어주었다.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트럭을 운전했던 보초병을 따라 지하실을 나왔다.
보초병에게 어디로 가는 것 인지 물어 보았더니 이장의 방으로 간다고 한다.
이장의 집 입구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이동 중)

그렇게 보초병을 따라 이장의 방으로 도착 했다.
이장 방에 들어서는데 순간 큰 책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책장을 바라보는데 내 책이 책장에 꽂아져 있다.
눈이 동그래져 이장을 보고 있는데 순간, 이장이 나를 돌아본다.
“네가 깨끗한 물을 만든다고 딸아이가 그러던데, 정말인가?”
“예,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책을 발견 하지 않은 척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그러자 이장이 내게 거래를 요청한다.

‘집집마다 간이정수기를 만들어주면 자네를 풀어주겠네 아니면 계속 지하실에 갇혀있게나!’
계속 지하실에 갇혀있던지 간이정수기를 만들던지 둘 중 하나 고르라는 건가?

‘지하실의 건축자재를 이용하면 트럭을 타고 탈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간
이정수기를 다 만들면 이장이 풀어 줄 거라는 보장도 없고…….’

10-1. 탈출을 계획하고 다시 지하실에 갇힌다.

10-2. 정수기를 만들어 책을 찾을 기회를 엿본다.

아무래도 다시 지하실에 갇히는 것 보다, 이장의 거래에 응하는 것이 책을 빨리 얻는 방법
일 것 같다.

‘그럼 감시자한명과 함께 간이정수기를 만들어 주게나.’

‘감시자? 감시자라니’

“어서가요.”

“나를 가두더니 이제 감시까지 하시나요.”

“잔말 말고 어서 그 정수기나 만들러 가요”

‘그래…… 정수기나 만들자. 우선 재료가 있어야 만드는데…….’

“저……. 숯이 필요한데 어디에 있을까요?”

“저쪽 우물반대편으로 가면 나무를 모아두는 헛간이 있어요. 거기로 가 봐요.”

여인이 낭랑한 목소리로 팔랑팔랑 길을 안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함께 헛간, 마을 공동으로 쓰는 창고, 우물가 등 마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재료를 찾았다.

여인의 친절함 안내 덕분에 쉽게 재료를 얻었고, 나는 여인의 도움으로 간이정수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 옆에 있던 쇠못도 넣는 거 예요?”

창고에 앉아 내가 간이정수기를 만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여인은 궁금증을 가득 띤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아…….철이 반응성이 좋아서 쇠못을 넣으면 왠지 화학반응으로 중금속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한데……. 아니지……. 녹슬었으니깐……. 쇠못에서 중금속이 더 나오려나?’

11-1. 녹슨 쇠못도 간이정수기에 넣는다.

11-2. 녹슨 쇠못은 넣지 않는다.

나는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리고 답해주었다.

“쇠못이 물과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물속의 중금속을 없애 줘요. 특히 녹슨 쇠못이 좋아요.”

“여기 하나 다 만들었는데 잘 되는지 실험 해 볼까요?”

나는 다 만든 간이정수기를 여인에게 주었다.

여인이 미리 우물가에서 떠온 물을 정수기에 넣기 시작한다.

(물 넣는 중)

‘똑…….똑…….’

간이정수기에서 어제 보다 더 깨끗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녹슨 쇠못을 넣은 덕분이다.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여인이 환한 미소를 짓는다.

“어서 아버지께 보여주러 가요!”

여인이 간이 정수기를 들고 앞장서서 걸어간다.

“아버지 간이 정수기가 잘 만들어 지고 있어요.”

이장이 방으로 들어오는 우리를 보더니 “그래? 어디 한번 보자꾸나.”

그리고는 자신의 물병에 있는 물을 간이정수기에서 부어버린다.

이장이 간이정수기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고맙다며 짧은 감사 말을 건넨다.

여인의 엉뚱하면서도 똑똑한 질문덕분에 이장의 신임을 얻게 된 것 같다.

한때는 나를 지하실에 잡아넣어 밭게만 여겨지던 여인에게 고마워진다.
감사인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 깨끗한 물을 보고 환하게 웃는 여인의 미소가 예쁘게 보인다.
“어서 간이정수기를 더 만들러가요.”
창고에 돌아온 나는 여인의 환한 미소에 기분이 좋아 간이정수기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다.

(만드는 중)

갑자기 여인이 내 어깨를 두드린다.
“저기…… 솥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네, 솥 좀 만들러 가야겠다. 얼른 다녀올게.”
창고에 나와서 솥을 만들 준비를 한다.
장작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장에게 책을 받을 수 있을까.’
‘에잇 일단 현재에 집중하자. 그나저나 이정도 만들었으면 되었겠지? 이제, 간이정수기 만들러 다시 돌아가야겠다.’
“으악”
돌아가려고 몸을 틀었는데 눈앞에 여인이 서있다.
“깜짝이야. 왜 여기있는거야.”
“감시자라서 온 거예요 감시자라, 짹!”
나의 놀란 모습을 보고 웃는 여인에게 장난을 치고 싶다.
“엇, 여기 뭐 묻었네요.”
나는 여인의 코에 솥가루를 묻혔다.
여인의 솥이 묻힌 모습에 웃음이 난다.
“어머! 당신도 묻었네요.”
여인이 솥을 묻힌 손을 내 얼굴로 뺨아왔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피한 뒤 도망간다.
“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인은 억울한지 울상이 되어 쫓아온다.
울상을 짓고 코에 솥을 묻힌 채 쫓아오는 여인의 얼굴이 귀엽기만 하다.

(도망 중)

‘헉…….헉…….’
우물 가까이에까지 도망쳐 왔다.
“이제 장난은 그만하고, 저기서 못난 얼굴 좀 씻어요.”
“우 씨, 네가 더 못났거든요.”
얼굴을 씻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
여인이 다 씻길 기다리는 동안 나의 옷을 보니 너무 더럽다.
솥을 열심히 만드느라 그랬는지, 여인 때문에 그랬는지 옷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나는 옷을 벗어 우물물을 길어 때를 비벼내기 시작했다.

얼굴을 다 씻은 여인은 내가 빨래하려는 모습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짓는다.

‘저……. 우리 마을은 빨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해요……. 내일 빨래를 하는 날이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12-1. 몰래하면 괜찮다며 옷을 빨다.

12-2. 하루를 기다렸다가 마을 빨래를 할 때 같이 한다.

여인에게 더러워진 나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재빨리 빨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빨래를 한다.

“자네 뭐하는 건가?”

“아……. 네, 안녕하세요. 이장님. 여기는 어떤 일로.”

역시 세상에 비밀은 없나보다.

“우물이 얼마나 남았나. 확인하러 왔지. 그것보다 지금 뭐하는 거냐고 물었네.”

“아……. 지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네 혼자 빨래를 해서 우물을 다 써버리면 식수는 어떻게 할 텐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건가! 다시 지하실에 갇히고 싶어? 정수기 좀 만들어 줬다고 좋게 봐줬더니 이거이거 문제고만 그냥! 우리 마을은 일주일 마다 빨래를 몰아서 하는데, 그 날을 어기다니. 물이 귀한 줄을 모르는고만. 쫓쫓. 내일 마을 빨래 자네 혼자 다하게나!’

이장이 간 후 여인이 와서 나에게 말했다.

“아니, 그렇게 제 말을 듣지 그러셨어요. 저희 마을은 일주일마다 빨래를 몰아서 하는데다가, 식수를 아껴야 되서 우물에서 하지 않고 계곡에서 해요”

눈앞이 까마득해진다.

이장에게 찍혔는데 책을 받을 수 있을까. (찍히다 표준어였음 ㅋ.ㅋ)

여인이 나에게 다가와서 다독인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만들다 만 간이정수기를 만들러 가야겠다.

빨래는 내일 생각해야지.

(하루 뒤)

아침이 밝아왔다.

그 많은 빨래를 하려니 벌써 한숨부터 나온다.

그래도 어떻게든 잘 해내서 이장의 화를 잠재워야 한다.

‘빨래를 할 때 필요한 재료가 무엇일까…….’

좋은 생각이 갑자기 뇌리에 스쳐지나간다.

‘그래 잣물을 만들자! 어제 숯 만든 것으로 잣물을 만들어서 빨래를 하자!’

여인과 함께 마을 빨래가 담긴 통과 잣물을 가지고 계곡으로 왔다.

‘빨래를 색깔별로 나눠서 할까? 아니면 너무 많으니깐 그냥 한 번에 해버릴까?’

한가득 쌓여있는 빨래를 보고 고민이 되기 시작한다.

13-1. 색깔별로 나누어 빨래를 한다.

13-2. 한 번에 빨래를 한다.

‘빨랫감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해서 시간을 단축하자.’

빨래를 하려고 보니 강가에 반짝이는 금속성 물질이 여기저기 널려있다.

왜 강가에 금속성 물질이 있는지 모르겠다.

‘금속성 물질 때문에 강바닥에 두고 빨래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찌지……. 아! 그래! 가져온 통을 이용하자!’

통에 빨래를 던져두고 솥으로 만든 찻물을 붓는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여인의 한마디가 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통에 같이 들어가서 발로 열심히 밟는다.

열심히 빨래에 집중 하는데 갑자기 여인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아이, 어제 내 얼굴에 솥 묻힌 복수예요’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 손을 허우적대다가 나도 모르게 여인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우리는 함께 빨래위로 나뒹굴어 넘어지고 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밑에 깔린 여인의 얼굴이 보인다.

“빨리 비켜요.”

여인의 얼굴에 갑자기 홍조가 띈다.

어,…….어, 미안.’

재빨리 일어나 여인을 일으켜준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빨래에 집중해야겠다.

(빨래 중)

빨래를 어느 정도 끝냈다.

“도와줘서 고마워”

여인 덕분에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힘도 덜 들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야겠다.

“아까 넘어트린 거 미안해요.”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힘없이 대답한다.

“험험……. 아니야…….”

빨래를 끝내고 마을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게 느껴진다.

마을에 도착했다.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빨래 도와주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집에 들어가서 쉬어.”

여인은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몸이 천근만근해서 한시 빨리 쉬고 싶지만, 빨래를 말려야 한다.

(건조 중)

젖물로 빨래를 해서 그런지 때가 속 빠진 옷들이 제 색을 빙네고 있었다.
 이를 보고 이장은 나를 다시 자신의 방으로 부른다.
 이장의 방에 가니 잠시 잊고 있던 내 책이 책장 위에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책장을 보았다.
 아직 그 책이 그대로 있다.
 지금까지 이장이 시킨 대로 간이정수기도 만들러 다니고, 마을빨래도 다해서 신임도 많이
 얻은 것 같다.
 “제가 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한 조심스레 여쭙어봤다.
 “책을 주겠네, 대신 마을의 문제하나를 해결해 주게.”

14-1.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14-2. 몸이 지쳐서 조금 쉬다고 한 뒤 책을 몰래 빼오기로 한다.

“네! 말씀만 하십시오. 심혈을 기울여 해결하겠습니다.”
 “마을의 문제는 깨끗한 물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라네. 마음 놓고 깨끗한 물을 얻는 것이 나
 의 마지막 바람 일세”
 마을의 물이 있는 곳을 생각해 보면 크게 우물물과 계곡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물물은 조금씩 말라가는 추세에다가 깨끗하지도 않아서 내가 만든 정수기를 이용해야한
 다.
 계곡물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일주일에 한번만 사용하다.
 그리고 그 일주일마다 오늘처럼 빨래도 하고 식수도 길어온다.
 ‘근데 왜 일주일마다 할까?’
 조금 더 조사를 해볼 필요성을 느꼈다.

15-1. 계곡에 내려가 조사해본다.

15-2. 마을을 돌아다니며 조사해본다.

계곡으로 내려가 보니 저번에 보았던 여타 |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느 날부터 물맛이
 금속들이 보인다. 자세히 보니 총알과 | 이상해지고 몸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수류탄 조각, 포탄 덩어리들이다. | 한다. 그래도 요즘에 정수기를 사용하고부터
 생각해 보니 지하실에 있을 때 있었던 | 몸의 피로도 풀리고 반점이 줄어들어 고맙다고
 작은 여진들과 요란한 소리는 포탄이 | 한다. 나는 언제부터 그런 것이냐고 하니 계곡
 떨어지는 소리였나 보다. 마을에 군인들이 | 건너에 있는 옆 마을과 계곡을 두고 싸우게 된
 많은 것과 계곡물을 일주일에 한번 사용가능한 | 이후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아마 전쟁으로
 것은 아마 작은 전쟁과 협정 때문인 | 인해 물이 오염되어 사람들이 중금속에 중독된
 것 같다. | 듯싶다.

안전하게 물을/중금속이 없는 물을 구하려면 지금 있는 우물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
 를 끌어오거나 송수관을 만들어 계곡물을 끌어 와야 될 것 같다.

16-1. 기존의 우물을 조금 더 깊게 파자.

16-2. 계곡물을 가져 오도록 하자.

“지금 있는 우물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오려면 우물을 더 파야해요.”

“그래요. 당신이 만들고 나누어준 간이정수기 정말 잘 쓰고 있어서 보답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되었네요.”

나는 마을사람들에게 우물을 더 깊게 파자고 설득하자 건장한 마을청년들이 간이정수기를 만들어 나눠준 것이 고마웠다며 함께 우물을 파준다고 한다.

우물을 더 깊게 파 계곡의 물높이보다 낮게 하면 계곡물이 우물로 들어오고 그러면 계곡까지 가지 않아도 계곡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하실에서 봤던 펌프를 이용해서 우물을 파자.’

(하루 뒤) (이걸 며칠로 잡아야할지 고민)

우물물이 충분히 차올랐다.

‘물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래서는 여전히 문제이지 않은가.’

그러나 그걸 보고도 이장은 만족하지 못했다.

실제로 계곡물이 지하로 들어와 생긴 우물물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다.

“이장님, 계곡물이 더러운 건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 지금 당장 총을 메고 옆 마을을 점령하고 오면 되나?’

이장이 되레 화를 내며 물어온다.

이전에는 이렇게 우물을 더 깊게 팔 펌프가 없었고 지금은 계곡물이 더러워졌는데 어찌라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한다.

17-1. 직접 옆 마을로 찾아가 협상을 하고 온다.

17-2. 이장한테 옆 마을 이장과 협상하라고 한다.

이장이 저렇게 화내는데 이장하게 옆 마을 이장과 협상하라고 했다가 봉변을 당할게 뻔하다.

내가 한 번 가보자.

(이동 중) (여긴 긴장감 덜해서 생략해도 될 듯)

백기를 들고 옆 마을로 넘어가자 옆 마을 군인들이 총을 겨눈다.

“누군데 여기 온 거냐?”

“이 마을의 이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깨끗한 물을 얻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장님을 뵈게 해주세요.”

간절한 눈빛으로 군인들을 쳐다본다.

“그걸 어떻게 믿지?”

사내들은 충을 경누며 나를 위협한다.

위협하는 사내들의 손에 중금속중독에 의한 반점들이 보인다.

“여기에 마을의 물을 부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간 간이 정수기를 보여주며 자신 있게 말했다.

“마을의 우물로 데려가 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저를 죽이셔도 됩니다.”

(우물로 이동 중)

“내가 바로 옆 마을 이장이네.”

옆 마을 이장을 보니 우리 마을의 이장과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놀라 주저앉을 뻔 했다.

옆 마을 이장과 마을사람들 그리고 내게 충을 겨눈 사내들이 나를 둘러싸고 서있다.

이곳의 우물은 말라가고 있었다.

우물에서 물 한바가지 길러 간이정수기에 흘려주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저자를 잡아라!”

성급한 이장이 손으로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5분만……. 아니 1분만 기다려 주세요.”

간이정수기에서 조금씩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자 마을사람들의 적대적인 눈에서 흥미로워 하는 눈빛으로 변했다.

“어떻게 하면 그 장치를 만들 수 있지?”

이장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나에게 차근차근 물어왔다.

18-1. 장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대신 휴전협상을 하라고 한다.

18-2. 장치를 만드는 것보단 전쟁을 끝내야 마을사람들의 병도 고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우물물이 말라가서 계곡물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

계곡의 상류는 전쟁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산중턱의 계곡물처럼 더럽지 않다는 것이다. 전쟁으로 깨끗한 계곡물이 더럽혀졌고 전쟁으로 계곡물이 더러워지자, 이제는 전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계곡의 상류를 서로 차지하기위해 전쟁을 벌인다고 했다.

“그럼 휴전을 하고 함께 계곡에 널려있는 전쟁쓰레기부터 치워요.”

“무의미해.”

우리 마을의 이장과 쌍둥이 같은 옆 마을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곤 말이 없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듯 보였다.

“만일 간이정수기를 만들고 싶으면 내일 계곡으로 내려가서 쓰레기를 주워주세요.”

이장에게 부탁하고 우리 마을을 향하여 돌아왔다.

이장이 날 잡을 줄 알았는데, 순순히 보내준다.

혹시 내 말이 설득된 것일까.

마을에 가니 여인이 나를 맞이한다.

여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니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이 보인다.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한 거야.”

(다음날)

옆 마을에서 정말 쓰레기를 주우러 올까.
나는 어떻게 할까.

19-1. 쓰레기를 주우러 간다.

19-2. 주우러 가지 않는다.

쓰레기를 주우 내려간다고 하니 마을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가지마세요…….”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말린다.

“미안해. 두 마을을 위해선 어쩔 수 없어.”

나는 여인을 애써 진정시킨다.

나는 내려와 쓰레기를 주웠고 고요한 정적 속에서 어느 쪽에서도 나에게 총을 쏘지는 않았다.

그렇게 홀로 쓰레기를 줍고 있을 때, 여인도 내려와 함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다음엔 옆 마을의 병사들이 내려와 쓰레기를 주웠으며 그 다음엔 함께 우물을 팠던 마을청년들이 내려와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양쪽 마을 사람들은 계곡에 내려와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고 계곡은 옆 마을 사람과 내가 있는 마을사람들이 만나는 화합의 장이 되었고 계곡은 금세 깨끗해졌다.

그러나 중금속들이 다 내려가지 않았는지 아직 물이 탁했고 우리 마을의 사람들은 옆 마을 사람들에게 간이정수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함께 일을 하고 정수기를 만들며 양쪽 마을 사람들 간에 쌓여있던 알 수 없는 불신이 사라지고 두 마을의 군인들은 서로를 향해 총을 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계곡의 물이 깨끗해지기 시작했을 때 양쪽 마을의 이장들은 화해를 했다.

이장은 나를 방으로 불러 책을 주었다.

책을 받은 나는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읽었던 뒷부분을 마저 읽었다.

그리고 책에 ‘이제 책의 길을 따라 너의 길로 돌아가자.’는 문구와 함께 밑에 있는 엑스와 동그라미가 쓰여 있었다.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

“돌아가지 마세요.”

여인은 내게 애원한다.

“나를 잊지 만 말아줘요.”

그리고 나는 책에 동그라미를 쳤다.

여인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내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

‘잘 가……. 언니…….’(Real Ending)

(다음날, 며칠 후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수정)

<1-2>

나는 폐허 안을 뒤적이다가 바닥에 누어져 있는 장롱하나를 발견했다.

그걸 뒤집어 보니 지하실문처럼 보이는 입구를 발견했다.

나는 그 안에 숨어든다.

이전의 그 책을 읽어 보려고 책을 꺼내든다.

그러나 너무 어두워 책을 읽을 수 없었다.

장롱의 문을 약간 열어 그 문틈사이로 비춰지는 빛으로 책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2173년 지구는 물이 고갈되어 각 나라들은 물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쪼개지고 각 지역은 물로 인한 싸움이 벌어진다.’

.....

몇 장 넘겨서 읽어 봐야겠다.

‘물 사업을 하는 주인공은 빌딩에서 낮잠을 자던 중 내전이 발생하고 전쟁 중에 홀로 남게 된다.

뭔가 내 상황이랑 비슷하군.....’

‘저벽저벽’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건가.’

‘아까 계단에서 만난 것처럼 다른 피난민인가?’

피난민들인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지만 그들은 피난민이 아니라 군인들이었다.

결국 나는 병쩍 얼굴을 한 채 생포되고 말았다.

1-2-1. 몰래 책을 읽어 본다.

1-2-2. 다음 기회를 엿보며 쥐 죽은 듯이 가만히있는다.

<1-2-1> **Game Over**

생포되어 지하실에 묶인 나는 자는 척 누워 몰래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을 보니 나는 지하실을 빠져나와 도망치는 것이 안전했다.

‘이런.....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읽으려는 순간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군인이 꿈지락 거리는 나를 보고 내게 다가온 것이다.

나는 책을 뺏겼고 군인들은 영어로 된 책에는 흥미가 없는지 나의 책에 불을 질렀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내 몸이 서서히 사라져 갔다.

<1-2-2> **Game Over**

팬히 눈에 띄는 행동을 했다가 기회를 날릴 수도 있으니 나는 가만히 잠이나 마저 자기로 했다.

‘으!’ 누군가 복부를 발로 차는 느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다행히 책이 있던 부분에 맞아 고통이 덜하다는 생각을 하려던 찰나 나를 발로 찬 군인이

내 책을 눈치 채고 뺏어가 버린다.

영어로 쓰인 책이라 그런지 군인들은 신기하게 여기며 서로 읽겠다고 빼앗다가 책이 그만 찢겨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왜인지 나의 몸은 가운데부터 서서히 사라져 가기 시작했다.

<2-2>

오토바이를 타고 십분 쯤 달렸을까 갑자기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어서 비틀거리다 쓰러진다. 희미한 정신을 붙잡고 있자니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핑크 난 채 쓰러져 있었다.

멀리서 군인들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게 보인다.

오래돼서 시끄러운 오토바이소리가 군인들의 주목을 끌어 저격 대상이 된 것 같다.

나는 결국 정신을 잃은 채 생포되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었다.

2-2-1. 몰래 책을 읽어 본다.

2-2-2. 다음 기회를 엿보며 쥐 죽은 듯이 있다.

<2-2-1> Game Over

생포되어 감옥에 갇힌 나는 자는 척 뒤로 누워 몰래 책을 읽기 시작했다.

‘2173년 지구는 물이 고갈되어 각 나라들은 물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쪼개지고 각 지역은 물로 인한 싸움이 벌어진다.’

.....

몇 장 넘겨서 읽어 봐야겠다.

‘물 사업을 하는 주인공은 빌딩에서 낮잠을 자던 중 내전이 발생하고 전쟁 중에 홀로 남게 된다.’

‘뭐지 상황이 너무 겹치는데.....아니, 이건 그냥 판박이잖아!’

책을 보니 나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트럭을 타는 것이 안전했다.

‘이런.....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지‘

읽으려는 순간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군인이 꿈지락 거리는 나를 보고 내방으로 들어온 것이다.

나는 책을 뺏겼고 군인들은 영어로 된 책에는 흥미가 없는지 나의 책에 불을 질렀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내 몸이 서서히 사라져 갔다.

<2-2-2> Game Over

팬히 눈에 띄는 행동을 했다가 기회를 날릴 수도 있으니 나는 가만히 잠이나 마저 자기로 했다.

‘음!’

누군가 복부를 발로 차는 느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다행히 책이 있던 부분에 맞아 고통이 덜하다는 생각을 하려던 찰나 나를 발로 찬 군인이 내 책을 눈치 채고 뺏어가 버린다.
영어로 쓰인 책이라 그런지 군인들은 신기하게 여기며 서로 읽겠다고 빼앗다가 책이 그만 찢겨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왜인지 나의 몸은 가운데부터 서서히 사라져 가기 시작했다.

<4-2>

정신이 아득하다……. 트럭에서 내리려는 순간 발에 닿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저 위로 트럭이 먼지를 날리며 낭떠러지를 따라 난 길을 지나간다.
시간을 되돌리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

(잠시 후)

으…….

다행히도 다리가 다친 것을 빼면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절벽이 높지는 않았나.……. 아님 내가 행운아였던 것인가.
주위를 살펴보니 옆에 강물이 있다. 트럭 안에서 들었던 물소리가 트럭 주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강물이 흐르는 소리였나 보다.
그나저나 큰일 났다. 내가 갖고 있는 책이 없어졌다. 빨리 찾아야 한다.

4-2-1. 강 주변을 찾는다.

4-2-2. 절벽 위로 올라가서 찾는다.

<4-2-1>

강 주변을 한참을 뒤져보아도 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때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 그곳을 보니 저 멀리 군인들이 보인다.
나는 깜짝 놀라서 숨으려고 하는데 순간, 군인들의 손에 시선이 갔다.
아니, 이럴 수가! 나의 책이 군인에게 넘어 갔다.
꼭 찾아야 된다.

4-2-1-1. 군인들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른다.

4-2-1-2. 군인들을 몰래 따라간다.

<4-2-1-1> Ending1

나는 소리를 지르며 다친 다리를 부여잡고 연기를 했다.
군인들이 경계하며 나에게 다가왔다가 내 다리가 상당히 부은 것을 보고 나를 부축해준다.
나는 고마운 마음에 몸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들은 나를 결박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어느 쪽 마을사람인지 심문을 하기 시작하며 자신들의 기지로 끌고 와 버린다.

나는 내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어이없어 하며 대장을 부르러 갔다.

대장이 왔다.

아! 전에 전쟁 난 마을에서 나에게 도망치라고 말해줬던 사람이다.

다행이도 그 사람은 나를 알아 봤고 군인들에게 빼앗긴 책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게임이 우리 마을, 옆마을을 기준으로 진행되는데 반군 정부군 나오는게 이상함=> 우리마을 옆마을로 수정 뭔가 동등해 보이는 관계인 듯 해보이는 것같아서 / 옆마을로 진행하고, 대장은 옆마을 대장인 것으로 설정해봄)

<4-2-1-2> Game Over

군인들을 몰래 따라갔다. 언제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지.

강 주변을 배회하고 군인들을 한참을 걸은 탓인지 절벽에서 떨어져 다친 다리가 더욱 심하게 퉁퉁 부어있다.

‘이 다리로는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결국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만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캄캄한 밤이었고 까마귀 소리만 까악까악하고 들려온다.

‘으아악!’

책을 잃었다는 슬픔보다 심하게 쓰러지면서 부딪힌 머리 쪽 상처에서의 출혈과 이전의 그 다리가 이제는 파랗게 색이 변해있는 상황에 고통이 온다.

다리 쪽에서 뼈를 아리는 고통과 머리 위에서 목덜미를 타고 내리는 피를 따라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나는……. 다시 정신이……. 희미해져 간다.…….

<4-2-2> Ending2

다리가 아파 잘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피가 나는 다리를 옷으로 꼭 묶어 고정시켰다.

절벽 위로 조금씩 조금씩 힘겹게 올라간다. 그나마 좀 낫다.

그리고 절벽위로 다 올라왔을 땐…….

‘다행이다! 책이 있다.’

떨어지다가 절벽 위에서 책을 놓쳤나 보다.

이제 책을 읽고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

<6-2> Ending3

여인을 힘으로 제압한 나는 여인의 팔을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뒷문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방금 타고 온 트럭이 세워져 있었다.

“뽐썩마!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 여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트럭 열쇠를 어서 주어라”

군인들이 조심스레 열쇠를 주었다.

나는 여인을 트럭에 태우고 마을을 재빠르게 빠져나와 어디로든 달리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을 무렵 여인을 길가에 버리듯 내려주고 왔다.
여인을 내리고 얼마나 달렸을까 결국 나는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에 도달 할 수 있었고 거기
서 책을 마저 읽을 수 있었다.

<8-2.> Game Over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에 검은 반점이 생긴다.....
물을 마신 이후로 몸에 증상이 생긴 것 같다. 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아득해져간다.....
이곳에 오기 전 중금속중독에 관한 책을 읽은 게 생각한다.
‘이런 물을 더 이상 마시면 안 되는데.....’
‘정수를 해야 되는데.....’
‘이미 너무 늦은 건가.....’하는 생각과 함께 쓰러져 버렸다.

<9-2.> Game Over

이상한 물건이라고 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여인을 믿고 여인이 가져다 준
물을 먹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에 검은 반점이 생긴다.....
물을 마신 이후로 몸에 증상이 생긴 것 같다. 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아득해져간다.....
이곳에 오기 전 중금속중독에 관한 책을 읽은 게 생각한다.
‘이런 물을 더 이상 마시면 안 되는데.....’
‘정수를 해야 되는데.....’
‘이미 너무 늦은 건가.....’하는 생각과 함께 쓰러져 버렸다.

<10-1>

”아니요, 그건 다시 만들기 어려운 물건이라..... 죄송합니다.”
“저 자를 지하실에 가둬라!”
이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이동 중)

지하실에 다시 갇혔다.

탈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아, 그전에 탈출하고 난 후에는 어떡하지?’
‘생각해보자. 트럭을 타고 도망쳐 다른 마을에서 살아갈 방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또 이장의 방으로 잠입하여 책을 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도 있겠지…….’
지금은 그 두 가지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이제 이곳에서 나갈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쇼생크탈출에서처럼 벽을 조금씩 파서 빠져나갈까? 어차피 아까 보니 한쪽은 절벽 쪽이라
콘크리트 외벽으로 만들어져 금방 구멍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부비트랩을 만들어 보초병을 쓰러뜨려 열쇠를 빼앗을까?’

10-1-1벽을 판다.
10-1-2부비트랩을 만든다.

<10-1-1> Game Over

조금씩 벽을 판다.
벽을 판 부분은 건축자재들로 막아두었다.
벽을 파서 나온 흙들은 건축용 흙 안에 감쳐두었다.
식사 시간에는 보초가 들어오지 않아 갑자기 들어와 들킬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 때 파자.

(시간이 흐른 후)

그러나 벽을 거의 다 뚫다.
다음 식사시간에 탈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인이 식기를 가지고 왔다.
식사를 재빠르게 끝내고 벽을 파기 시작한다.
끼이이이익
“뭐하는 것이냐!”
5분도 안되어 갑자기 보초가 들어와서 걸리고 만다.
여인이 지하실에 미풍이 들어온다고 보초병에게 말하여 불시검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렇게 나는……. 탈출을 감행하다 걸려서 탈출에 실패하게 되고 책도 찾지 못하게 된다.

<10-1-2>

부비트랩을 만들어 살짝만 건드려도 썩여있던 나무들이 넘어지도록 만든다.
문제는 나무가 썩여 있는 곳까지 보초병을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나무 두 개를 들어 나무 하나는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비명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누워 다른 하나를 얼른 다리위에 올려놓는다.
나의 비명을 들은 보초가 급하게 들어왔다.
보초병은 나무를 치워주러 달려오다가 내 계획대로 나무더미를 건드리고 만다.
‘우당탕’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나무들이 무너진다.
보초는 깔려 기절하고 만다.
나는 다른 보초병들이 오기 전에 보초병의 주머니를 뒤적였다.
열쇠를 찾았다!

10-1-2-1. 트럭을 타기위해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10-1-2-2. 기절한척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10-1-2-1> Game Over

지하실을 빠져나가는 순간 나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보초병들에게 발각되었고 이장은 내가 만든 부비트랩을 만든 것을 알게 되었고 나를 징계하기로 결정한다.
결국 나는 이렇게 또 다른 세상에서 나의 이야기를 마치게 된다.

<10-1-2-2>

기절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보초병들이 달려와 나와 기절한 보초병을 꺼낸다.
보초병들은 나는 지하실에 던져두고 기절한 보초병만을 끌고 위로 올라간다.
나는 얼른 부비트랩의 흔적을 치우고 열쇠를 신발밑창에 숨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장이 내려와 어지러워하는 척 벽에 기대어 있는 나의 주머니를 뒤지고 나무주변을 조사하도록 시켰지만 아무런 흔적도 나오지 않는다.
나는 운동을 하다가 나무를 건드렸고 그 나무가 내게 쓰러졌다고 변명한다.
이장은 다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위로 사라진다.
밤이 되자 나는 아까 빼었던 열쇠를 이용하여 지하실 밖으로 나온다.

1. 트럭을 타고 마을을 빠져 나갔다.
2. 책을 찾기 위해 이장의 방으로 갔다.

<10-1-2-2-1> Ending 4

마을을 빠져 나간 나는 도시를 찾아 나선다.
결국 책을 찾지 못 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한다.
마을 밖으로 나가자 황량한 산밖에 없었고 물을 얻기 위해 나는 다른 도시를 찾아 헤맸다.
그러나 다른 도시는 쉽게 나오지 않았고 끝없는 산만이 이어져 내 목과 함께 정신은 서서히 서서히 날아가기 시작했다…….

(물 사업을 하던 주인공이 돈이 많은지 ㅠㅠ? 그의도가 아닌것 같다고 생각해서 수정
근데 너무 급 끝나는 느낌임 ㅠㅠ)

<10-1-2-2-2> Game Over

책을 찾으러 이장의 방으로 가자 이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웃음을 지으며 병사들과 함께 있었다.

나는 이전에 이장이 보인 음흉한 미소가 생각났고 이장에게 내 계획을 다 읽힌 것을 깨달았다.

결국 나는 병사들을 다치게 하고 책을 강탈하려고 한 나의 잘못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이장은 이렇게 까지 책을 훔치려한 나를 의심스러워하며 군인들에게 책을 강물에 빠뜨리라고 나는 지하실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책이 강물에 던져져 버려졌는지 나도 물속에 잠기듯 정신을 잃고 거품이 되어 사라져갔다.

<11-2> Game Over

간이정수기를 다 만들어 이장에게 보여주었다.

이장은 걸려져 나온 깨끗한 물을 보며 약간 미심쩍어 하며 물맛을 보았다.

그러자 이장의 얼굴이 구겨지며 처음 만든 간이정수기와 다르다며 여전히 중금속맛이 난다며 화를 냈다.

그러자 나는 다를 리가 없다며 그 자리에서 처음 만든 간이정수기를 분해해보았다.

그러나 처음 만든 간이정수기에는 모래사이에 녹슨 쇠못들이 나왔다.

건축자제들이 마구잡이로 널려있는 통에 우연히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쇠못이 들어가 있었다.

쇠못이 들어가 있을 때 중금속이 없어졌으니 쇠못을 넣어야 물에서 중금속이 빠져 나가나 보다…….

이 사실을 몰랐던 나는 당황했고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는 이장은 화가 나서 나를 마을 밖으로 내쫓았다.

마을 밖으로 나가자 황량한 산밖에 없었고 물을 얻기 위해 나는 다른 도시를 찾아 헤맸다.

그러나 다른 도시는 쉽게 나오지 않았고 끝없는 산만이 이어져 내 목과 함께 정신은 서서히 서서히 날아가기 시작했다…….

<12-2> Game Over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모기는 물론이고 옷 속에 이, 진드기, 개미, 벼룩 등 벌레랑 벌레는 다 나와서 나를 물어뜯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일까…….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다.

산속이라 병원도 없다는데……. 큰일이다…….

벌레에 물려 바이러스가 퍼진 것 같은데……. 여인이 다가와 민간요법을 써주지만 효과가 없다…….

열은 나는데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진다.

정신은 점점 더 아득해져간다…….

<13-1>

빨래를 색깔별로 하면 빨랫감의 색이 섞이지 않아서 지금껏 빨래할 때 색깔별로 해왔었다.
‘빨리 끝내는 것보다 깨끗하게 빨래하는 것이 이장의 신임을 얻을 것 같다.’

(빨래 중)

하얀색과 검정색의 빨래만을 했을 뿐인데 이미 날이 저물어 간다.
나는 다음날 하자고 했으나 여인이 오늘 다 하지 않으면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
결국 나와 여인은 설 틈 없이 계속 빨래를 한다.
그때 어디선가 ‘다다다’하는 총 쏘는 소리가 들린다.
‘아! 이곳은 전쟁 중이었지’
나와 여인은 재빨리 바위 밑으로 몸을 숨겼다.
일단 이곳에서 도망쳐야 한다.

13-1-1. 빨래를 가지고 도망친다.

13-1-2. 빨래를 버리고 도망친다.

<13-1-1> Game Over

‘빨랫감을 버리고 간다면 이장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어떻게든 가져가야한다.’
“먼저 도망쳐요. 내가 어떻게든 이 빨랫감들을 가지고 뒤따라서 갈게요”
“무사 하셔야해요. 꼭.”
여인이 무사히 도망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본 후 빨래를 들고 뚝다.
헉…….헉…….
빨래의 양을 간과한 탓일까 생각보다 빠른 속력을 내지 못한다.
나는 결국 옆 마을 군인들에게 잡히고 만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책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내가 책 밖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모두 사라졌다.

<13-1-2> Game Over

빨래를 가지고 도망치기엔 군인들에게 잡힐 것 같아 몸이라도 빠져 나오기로 했다.
내 몸이 더 중요 하니까.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 마을로 들어섰을 땐 이장이 눈을 부릅뜨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감히 자네가 내 딸을 위험에 처하게 해? 거기다가 마을의 옷가지들도 모두 버리고 온겐가?

무슨 생각으로 그리한젠가! 말해보게”

이장은 크게 분노했다.

이장에게 책을 받으려면 빨래를 가지러 다시 계곡에 가야한다.

하지만 계곡에서 옆 마을 군인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책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내가 책 밖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모두 사라졌다.

<14-2>

이장은 나를 계속 부러먹을 생각인 것이 틀림없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분하다.

“저, 좀 지쳐서 오늘은 꼭 쉬고, 내일 다시 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나는 그날 밤 이장의 집에 침투하기로 한다.

(계락을 꾸미는 중)

저녁이 되었다.

비장한 마음으로 이장 집에 간다.

이장 집 앞에 보초들이 서있다.

“무슨 일인가.”

“제가 여기 근처를 걸어가는데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그쪽으로 가봐야겠네.”

전쟁에 민감해져 있는 사실을 이용해 보초들을 쉽게 따돌렸다.

집안으로 들어왔다.

이장의 방을 재빨리 찾았다.

철컹철컹

‘문이 열리지 않는다! 큰일이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된다.

“누구냐! 꿈쩍마!”

당황하고 있는 사이 군인들에 의해 결박되었다.

쿵

결국 다시 지하실에 갇혔다.

‘어떻게 하지…….’

(생각 중)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누구지.’

여인이다.

“내일 아침이면 아버지가 이 상황을 알게 될 것 이고, 무단침입하려고 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인이 수심에 잠긴 얼굴로 고민을 한다.

“도망가요”

14-2-1. 나는 책을 다시 얻기 위해 여인을 꼬드긴다.

14-2-2. 나는 결국 책을 포기하고 마을에서 도망친다.

<14-2-1> Game Over

“나를 이장의 방으로 데려다 주세요. 부탁이에요.”

“그게 무슨 책이기에 그렇게까지 해서 얻으려고 하나요.”

나는 거지와 만나 이곳에 오기까지의 일을 설명해 주었고 여인은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 하며 약간 미심쩍어 한다.

“그래요. 당신의 말이라면 믿을게요.”

여인은 나의 손을 묶는다.

“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끌려가는 척 해요. 만약 보조병을 마주치면 간이 정수기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면 둘러대고 방안으로 몰래 잠입해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이동 중)

이장의 방으로 가는데 이상하게 보조병이 보이지 않았다.

이장의 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여인이 열쇠를 꺼냈다.

철컹철컹

열쇠로 방을 열려는데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끼이이익

이장의 방안에 들어섰다.

무언가 불타는 냄새가 난다.

이장이 책을 한장 한장 벽난로에 태우고 있었다.

‘안 돼!’

놀란 내가 이장을 말리러 달려가자 이장에 방에 있던 병사들이 나를 잡아 바닥에 뒹개버렸다.

그렇게 내 몸이 서서히 사라져 간다.

<14-2-2> Ending5

여인은 내게 마을 밖으로 나가 안전한 도시로 갈 수 있는 지도를 주었고 나는 지도를 받으며

‘우리 같이 마을을 나가자.’

‘제가 가면 이장이 군사를 풀어 추격할 거예요……. 어서가요.’

‘고마워…….그리고 잘 있어…….’

나는 여인에게 짧은 말만 남긴 채 여인이 준 지도를 보고 마을을 떠났다.

밤에는 산길을 걷고 낮에는 숨어 지낸다.

“헉…….헉……. 저기 건물이 보이는 곳이 여기 지도에 표시되어있는 안전한 도시인가.”

나는 겨우 도심지 주변에 도달했고 그곳의 친절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구조된다.

여인이 사무치게 그립다.

여인을 마음 한켠에 담아 둔 채 책속의 도시에 정착하기로 노력한다.

(한켠이라는 말이 비표준어이지만 시에는 자주 등장한다고 함. 한켠이 개인적으로 와닿는거 같아서 . 한켠->한편이라고 쓴다고 함)

<16-2> Game Over

펌프를 이용하여 계곡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송수관을 만들어야 했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송수관을 만들도록 도와달라고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회의적 이었다.

“저기 예전에도 계곡에서 물을 끌어 오려고 했어……. 근데 송수관을 만들려고 계곡 옆의 절벽을 넘어가다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 그런데 다시 하라고? 간이정수기를 만들어준 건 고마운데……. 난 참여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저는 할 겁니다! 결국에는 해낼 겁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셔도 되요 혼자서라도 해 보일게요. 그래도, 혹시라도, 도와주실 분은 저랑 같이 송수관 공사를 하러갑시다.”

고집을 부리며 송수관 공사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내 말에 따라 나를 돕는다던 몇 명은 일주일이 지나도 일이 진척되니 앓는 것을 보고 미안하다며 하나둘 나의 결을 떠나기 시작한다.

결국 이장의 독촉에 지친 나는 병에 걸려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이 없던 산골마을에서 결국 나는 책속의 길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만다.

17-2. Game Over

옆 마을에서도 나를 의심할게 뻔하다.

“이장님이 옆 마을에 찾아가서 협상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장은 나를 보며 어이없다는 듯이 웃는다.

그때 옆에 있던 마을 아저씨가 내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사실 옆 마을 이장이 먼저 계곡물을 자기마을의 우물에 가져가려고 한 거. 그걸 보고 우리

이장님이 ‘같이 쓰는 물가지고 뭐하는 거?’라며 말린 거지. 그러니까 옆 마을 이장 놈이 우리 마을 이장님에게 그러는 거 ‘너희 마을도 수도를 공사하면 되지 않냐’고 말이며. 근디 말이며 우리 마을은 계곡하고 마을 사이에 절벽이 깊어서 수도관을 건설이 어렵단 말이며 예전에도 송수관을 만들려다가 몇 명이 절벽에서 떨어져 절단 나버렸다니깐 그래서 공사를 중단 했는디 이걸 알고도 옆 마을 이장 놈은 ‘너네도 해라’이렇게 지껄여 버리고 공사를 계속 진행해 버린 거. 계곡물을 혼자 써버리겠다 그거지.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물 부족에 허덕이다가 전쟁을 벌이게 된 거”

상황을 듣고 더 이상 진척할 수 없다고 생각된 나는 낙담해 버렸다.

“이장님,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까지 예요.”

“저 나름대로 정말 노력했어요. 책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준다고 하지 않았나. 방금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네.”

나는 그냥 계곡물을 끌어온 것만으로 만족하고 책은 잊은 채 살아가기로 했다.

(마지막 결과에 갑자기 나온 생각이 들어서 덧붙임)

18-1. Game Over

이 옆 마을 이장은 나를 가소롭다는 듯이 보고 웃는다.

“이봐라, 저자를 잡아라.”

병사들을 시켜 지하실에 가둬버렸다.

(잠시 후)

“장치를 만드는 방법을 말하던지, 평생 여기에 갇혀 있던지 알아서 결정하시게나.”

지하실을 둘러보았다.

‘큰일이다! 여기 지하실에는 우리 마을 이장집의 지하실처럼 만들 만한 장치가 없다.’

“저…….여기에는 재료가 없어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 재료를 가지러 갔다와도 되겠습니까?”

“빠져 나가려고 별 거짓말을 다하는군. 근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닌가?”

이장은 비웃으며 내 말을 받아쳤다.

“저년 평생여기에 썩게 가둬.”

<19-2> Ending 6

마을로 다시 돌아와 생각해보니 아주 위험한 하루였다.

내일 쓰레기를 주우러 가면 옆 마을 군인들이 총을 쏘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결국 나는 내려가지 못했고 물 문제는 해결할 방도가 없어 보였다.

나는 결국 우리 이장에게 거래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했다.

이장은 그래도 위험한 계곡으로 가지 않도록 많은 우물물을 얻게 되어 기분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옆 마을 사람들은 간이정수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기 위해 우리 마을로 하나 둘 넘어오기 시작했고 그런 우리 마을을 경계하기 위해 옆 마을 이장은 우리 마을에 대한 경계를 더 심하게 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은 풍부한 물 덕분에 농업량이 늘어 다른 마을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나는 번성하는 우리 마을에서 사업가 기질을 발휘하여 이장을 도와 잘 지내게 되었다.